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상생 위해 통합해야”

이낙연 지사 “광주없는 전남은 맹목” 강조

윤장현 시장도 선거과정서 주장 귀추 주목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28일 광주·전남 상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의 통합을 강하게 언급해 두 기관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 간담회 자리에서 “광주 없는 전남은 ‘맹목’이고 전남 없는 광주는 ‘공허’다”며 다시 한번 광주·전남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와 분리된 반면 대구·경북은 통합 운영

되고 과학기술원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로 소모적 경쟁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다”면서 “광주·전남 양 발전연구원도 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광주·전남의 상생에 시야를 두고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을 유치한 상생 선례도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언급은 사실상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된 발전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윤장현 광주시장도 선거과정에서부터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을 주장해왔었다.

이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만나 양 발전연구원 역할제고 등 7대 공동정책 과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상생안에는 영산강 시대 공동정책 수립, 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전남도도와 사업소 및 출연기관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

남발전과 도민 행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수익성이 큰 숙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장은 임기 중 소신을 갖고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전남발전연구원(방전연)은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발해 1995년 6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됐다. 2007년 다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하지만 분리될 당시 명분이 행정과 발전 방향이 다른 양 시도 여건이 무시됐다는 논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통합 과정도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I 방역 철저 당부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28일 오후 함평군 월야면 고병원성 AI 제 발생 현장을 찾아 안병호 함평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농장단위 소독 독려와 가금류 이동시 검사 의무화, 지속적인 차단방역 강화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내달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때

세계 주교 90명도 한국 온다

수행단 30명 포함

8월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의 방한 때 수행단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90여 명의 주교가 한국을 찾는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방준위)는 28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교황 수행단 30여 명과 아시아 각국의 주교 60여 명 등 90여 명의 주교가 방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교황 수행단에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인류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 교황청 평신도평의회 의장 스타니스와프 리우코 추기경 등이 포함됐다.

교황의 아시아 첫 방문인 만큼 아시아 각국의 주교들도 대거 방한한다.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의장 오스왈도 그라시아스 추기경을 비롯해 일본·미얀마·필리핀·몽골·리우코 등의 주교들도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경우 주교단 15명이 방한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추기경 시절 인연을 맺은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교구 문한림 주교와 영수추기경과 같은

가두구대교구 필리페 웨드라고 추기경도 방한 행사에 초청됐다.

이들 주교는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 교황과 아시아 주교들의 만남,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교황방한준비위는 브리핑에서 교황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안전대책을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소방방재청·보건복지부와 합동지원 체제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준위는 각 행사장 인근에 통합한 장치본부부를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 서울성모병원에는 서울지역 중앙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대전월드컵경기장, 솔의성지, 해미읍성 등 각 행사장에도 의료진을 배치하고 응급의료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6개 병원 174명의 의료진이 투입된다.

특히 교황과 수행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인력 2개조 30명이 방한기간 내내 24시간 비상 대기한다.

방준위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8월 16일 시복미사 때 제단을 광화문과 경복궁 쪽인 광장 북단에 설치해 세계인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황 방한행사 취재 신청에는 23개국의 내외신 기자 2800여 명이 등록했다. AP와 AFP, BBC, CNN, ABC, 뉴욕타임스, 알자지라, NHK 등 주요 외신도 취재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행자위, 조직개편안 표결 끝 통과

2주 시간 쫓다 거의 원안대로

불필요한 갈등 초래 비난일 듯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을 표결 끝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2주 동안 시와 시의회가 수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여왔지만, 결국 의회는 ‘성과’없이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시간만 끌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행자위는 이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지방행정국 소속으로 두려는 청년인재

육성과를 현행대로 여성청소년가족실로 존치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의회로 넘겼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하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마련됐고,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두려고 하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기능이 유사하다 보고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사회적 경제지원관 신설 및 감사관실 시장 직속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각각 기능이 다르므로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회적경제지원관을 신설하면 임명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회적경제지원관 신설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가 시의회의 수정 요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행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하고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장현 시장이 이날 점심 무렵 행자위원들을 만나 조직개편안 처리를 부탁하면서 행자위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표결 끝에 조오섭, 임택 의원이 반대했

지만 과반인 4명이 찬성해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행자위원회가 애초 참여혁신단과 사회통합추진단의 통합 등 조직개편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을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시간과 행정을 낭비했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의원들의 견제·감시·심의 기능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이렇게 통과시켜줄 비에야 조직개편안이 상정됐던 2주전에 처리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거수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저녁 8시30분 ‘월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조양원 등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훈·홍순석·조양원·

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중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상훈·조양원·김홍열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지멘스 상무점
역삼점(신원동 501호)
농성(문선지점)
아비동점(가정)